

# 전 국민 맑은 물 공급 군정 최우선

# 모바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도입

###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읍 양지지구 마을 상수도 개선사업 도비 8억원 확보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군수는 국가 수도정비계획에 진안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반영을 이끌어 내는데 이어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진안을 양지지구 마을 상수도 개선을 위해 도비 8억원을 확보했다.

진안읍 양지지구는 라돈과 불소 등이 수질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진안군에서 저감장치를 설치한 곳이

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질 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호소해왔으며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직접 만나 양지지구 상수도 공급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 건의하여 도비 8억원을 긴급 확보했다. 군은 도비 8억원과 군비 4억원 등 총 12억원을 들여 12km 구간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가압펌프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양지마을 57세대 102명 주민들에게 조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진안군은 3일 전춘성 군수와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이 '모바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군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춘성 군수 및 군 관계자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진안군 모바일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빠르면 오 14일부터 모바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류 상품권과 병행해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지류형으로만 발행하고 있으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구입할 수 있고, 지폐 형식의 화폐의 특성상 보관의 어려움과 가맹점에서 환전 시에도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협약을 통해 도입하게 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전자화폐(카드형·모바일형) 방식이 추가돼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상품권 가맹점주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가맹점주 통장으로 환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역 화폐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그 외에도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기억이음'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치매안심센터(체육터)를 통해 센터에 등록된 관내 경증 치매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기억이음(원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이음' 프로그램은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운영,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치매에 방제와 현실인식 및 인지강화훈련, 원예교실, 음악교실, 디지털 정보교육을 진행한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시작 전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자 간 최소거리 유지, 신체접촉 최소화, 공간 및 집기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소방서, 봄철 산불예방 주의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5월을 맞아 봄철 건조한 기후와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이 있어 조그마한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올해만도 무주, 진안, 장수에서 들불화재 포함 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진안에서 4월 21일 19시 22분경 성수면 염북마을 뒷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다행히 민가 피해는 없었고, 인양 약 500여명 내 잡목 및 잡풀 등의 피해만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양 10ha 정도 소실되었으나 소방 53명, 의소대 67명, 산불진화대 209명, 기타 공무원 50여명 등 400여명이 넘는 인원과 소방차와 산불진화차 48대가 투입돼 산불이 조기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 위 두건은 화재조사반의 산불 원인 조사결과 소방법상의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청 앞 대형 연등 탐 밝혀

### 불기 2565년 석가탄신일 맞아 1000여개 연등 달아

불기 2565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무주군은 3일 군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등 탐 점등식을 가졌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황인홍 군수, 무주군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향산사 성본 스님, 원



불기 2565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무주군은 3일 군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등 탐 점등식을 가졌다.

통사 진일 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 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해 진행 시간을 단축했으며 참석자들의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과 거리두기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 불교대학 이규평 사무처장의 개회선언과 복고사 혜진 스님의 반야심경 봉독, 그리고 연등 탐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어느 때 보다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소망과 일상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며 "더 많은 불자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방역의지로 밝힌 연등이 우리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불러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매년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연등 탐을 설치,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000여 개의 연등을 달아 높이 9m, 둘레 24m 규모의 탐을 세웠다.

한편, 무주군 봉축 연등 탐은 6월 초까지 매일(오후 7시~오후 10시) 붉을 밝힐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5월 월례조회 실시

무주군은 3일 월례조회를 통해 김영량 시인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볕'을 공유하며 5월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청 내 방송으로 월례사를 전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답답한 봄을 보내고 있지만 따스한 봄볕, 포근한 봄바람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5월을 살아가면 좋겠다며 공무원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이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은 달이지만 외부활동 제약과 거리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화 안부를 통해서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인홍 군수는 5월 추진 현안으로 ▲올·면 열린 대화 후속조치 이행,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 ▲농촌 일손 돕기 추진 절자를 꼽았으며 ▲봄철 화재 예방 및 ▲안전속도 5030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 정책과 농촌인력증개센터 등을 활용한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작은 부주의가 산립지원은 물론, 소중한 인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민들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화재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청렴한 공직자상을 강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지자체 합동평가 '도내 2위·군부 1위'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내 2위, 군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2년 연속 군부 1위(전북도 내 3위~2위로 한 단계 상승)를 차지한 무주군은 정량지표 51개 중 48개 지표(94%)에서 목표를 달성해 귀감이 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무주군은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등 3개 지표

를 달성했으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실적,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예산 집행률 등 10개 지표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등 22개 지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달성률 등 13개 지표를 완성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위한 예방 사업 만전

장수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월 군에 따르면 이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은 7,500만원(군비 7,100만원, 도비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작물별 생육 단계에 따라 피해액의 80%이내,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1억5,000여만원(보조 60%, 자

담 40%)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12농가, 전기목책지 27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2월까지 운영 중이다.

방지단은 35명의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 수렵 활동 제한지역을 제외한 장수군 전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